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기껏 한 줌의 도덕이 희망의 좌표인 까닭은

삼 스피노자가 남긴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한다.

고귀함의 의미는,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모르는 가치의 아름다움이다. 고귀함은 처한 상황의 유희리를 먼저 계산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아만적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고귀함을 파괴하는 것이야 만성이다. 이 아만이 친절한 얼굴과 다정한 계몽의 목소리로 다가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꺼이 마술피리 소리에 취해서 파멸의 길을 갔던가.

'미나마 모랄리아'는 테오도르 아도르노(1903-1969)가 쓴 철학적 수필이다. '미나마 모랄리아'를 번역하면 '한 줌의 도덕' 또는 '최소한의 도덕'이라 할 수 있다. 아도르노는 독일의 대표적 현대 철학자이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난 탓에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가 한껏 무르익은 미국에서, 인간이란 그저 물질적 생산 과정의 부속물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이 당시의 글이 바로 '미나마 모랄리아'이다.

이 책의 부제는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이다. 왜 아도르노는 이런 부제를 선택했을까? 상처로 인한 고통을 성찰로 연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공장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시작하고 끝나며, 부속물로 규정되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과 '사는 것'은 크게 다르다. 그러저럭 살아가는 존재에게 한 줌의 도덕 따위는 필요 없다. 부속품답게 잘 돌아가면서 한 자리를 지키면 그만이다. 그런데 왜 한 줌의 도덕인가? 부속품이

아닌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저럭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삶을 제대로 살 것인가?

완벽하며 아름다우며 거대한 도덕은 어디에도 없다. 완벽한 삶이 없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줌의 도덕이다. 매일 탈 없이 잘 돌아가는 생산 기계의 만족감 대신,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아픔까지 성찰하는 몸짓을 익히는 것이다. '세상이다 이래서'라는 말로 변명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경계가 뒤섞이는 혼돈의 현실일수록 더욱 한 줌의 도덕이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적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대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아시장을 기웃대지 않으며, 지나간 시간의 되돌리기 소용없을지 모르기 위해서 크고 웅장한 도덕의 견고한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 줌의 도덕은 세상의 모든 진실의 억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고백하며, 일상에서는 타인의 복제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작된 욕망 기계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도덕 의식은 자신의 상처를 믿고 일어나기에 늘 아픔과 소외의 장소를 향하는 만남이며, 누구나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길이자, 희망의 좌표다. 이 한 줌의 도덕이 소멸하지 않고 빛나는 한 우리는 서로에게 도달할 수 있다.

철학자 아도르노보다 더 독한 극한의 절망을 경험한 파울 첼란의 시 한 구절을 옮긴다. "내가 너 같았으면. 내가 너 같았으면./ 우리 한 무역종 아래 서 있지 않았던가?/ 지금은 낯선 이들이 우리."

꿈꾸는 2040



강수훈  
위민연구원 이사

'청년 전태일'에게 보내는 편지

용하는 면접 과정에서 노조 가입 의사를 질문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적대시하는 듯한 질문과 사상 검증으로 입사 후 노조 활동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실제 면접관이 노조 가입 의사에 대해서 질문은 했지만, 점수 반영은 안 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일할 곳을 찾기 위해 76대의 경쟁자를 마주하며, 점수에 반영되지도 않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애썼던 지원자들을 두 번 울리는 발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GGM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GGM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GGM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혈세 483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장 건설 하도급업체 노동자 200여 명은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먼저'인 2021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애꿎게 목숨을 잃은 '산업 전사'의 위령비를 세우며,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개통의 명분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빨리빨리"보다 "꼼꼼하게", '생산'보다 '창조', '성장'보다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GGM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GGM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호원과 기광산업(주)은 노사 상생 기업이 아니라, 노조 탄압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만든 어용 노조에 가입할 것을 회유하고,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 탄압이 사실이라면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주장

해 왔던 광주시는 두 기업에게 주어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을 즉각 취소하고, 그동안 이뤄진 특혜를 회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사 협력 문화 정착으로 노사가 함께 성과를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자는 포용과 상생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상황이 어렵고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의 용기와는 너무 비교되는 일입니다.

최근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부당 해고와 대표의 갑질로 인해 충격을 받은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한 부장을 계약 만료 당일에 아무런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며 퇴사시켰고, 일부 노동자들은 대표로부터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그만두고 나가서 애나 낳으라고 해"라는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행태를 계속 묵인하는 것은 민주도시 광주에서,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서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광주비엔날레 노조는 말합니다.

전태일 형!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노사 협의를 일자리를 지키기 대한민국의 상생 일자리를 선도하는 광주에서도 노동자 간 차별과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고, 실천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체육회장 선거인단에 바란다

우가 많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도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올림픽 대표 펜싱 선수였다.

그러나 최근 선출된 체육회장들은 연간 수천억 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장으로서 경륜이나 자질이 그 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회장 선출 경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도체육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선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무리한 출연금의 요구나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도체육회 회장 선출 경정은 대한체육회가 확정된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지방마다 조직되어 있는 대의원을 중목 단위로 확대하고 여기에서 민선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수가 기존보다 서너 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자격이 부족한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과다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거나 정치인과의 결탁으로 정치에 예속되어 체육계가 분열되고 예산이 감축되는 등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광주 민선 체육회장은 400억 원의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광주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높은 비전, 그리고 체육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든 리더의 비전이 중요하다. 체육회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당선되면 광주체육회를 변화시킬 확실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부 후보들 중에는 도덕성 결여와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되고 있어 당선될 경우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 체육 발전을 염려하는 많은 이들은 지방 체육의 정치 예측화나 체육인들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와 연관되었거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 과정에서 소외됐던 체육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경우 선거 후에 체육인, 지역 간 분열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시 빚어졌던 부작용과 추문이 이번 체육회장 선거로 옮겨 붙을까 우려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광주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선거부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시 분열되게 되면 선거 후 체육계의 분열이 이어져 광주 체육 발전은 요원하게 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다. 엘리트체육은 뛰어난 운동선수를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목표이고, 생활체육은 열 그대로 국민 모두가 평생 동안 즐기며 건강 생활을 영위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체육 활동이 아니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해야 발전할 수 있다. 일본이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면서 엘리트체육이 무너져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광주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자질과 비전이 있는 회장이 당선되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 체육까지도 아우르며 광주 체육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하여 광주 체육계가 꽃피는 봄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社說

5·18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는 지금 매우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계속되는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먼 소프가 1980년 5월 21일~27일까지 광주와 목포 등을 오가며 촬영한 사진 200여 점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다.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는 1980년 5월 당시 '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다. 그는 1980년 5월27일 오전 7시30분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끝나자 언론인으로서 처음으로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이 정리하기 전 내부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가 찍어 처음 공개한, 계엄군이 휩쓸고 간 옛 전남도청의 생생한 내부 모습은 참혹했다. 매우 아مان적이었다.

열여섯 살의 옛된 소년인 당시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과 안종필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사람은 목 부위에 총을 맞고 숨져 누운 상태였으며 또 한 사람은 복부에 총을 맞고 숨져 엎드려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의 사망 사진을 보면 주변에 총기는 없었고 빵 조각만 널브러져 있었

다.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불에 탄 주검 사진도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 준다.

이번 사진전은 노먼 소프 기자와 이재의(전 광주일보 월간부 기자) 씨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노먼 소프는 1980년 5월21일 광주를 찾았고, 22일 전남도청에서 대학생 시민군으로 활동 중이던 이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이후 1997년 다시 한국을 방문한 노먼 소프가 취재 수첩에 적었던 이름을 기억해 이 씨를 찾았다. 이후 최근까지 두 사람이 연락하던 중 이 씨가 가교 역할을 해 당시 찍은 생생한 사진이 도청복원추진단에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로운 사진과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5·18 기록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겠다. 한 사람은 목 부위에 총을 맞고 숨져 누운 상태였으며 또 한 사람은 복부에 총을 맞고 숨져 엎드려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의 사망 사진을 보면 주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시, 주요 현안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민선 7기 광주시의 행정이 입가를 1년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뼈격거리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부터 인공지능(AI),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비엔날레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 사업마다 입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GGM 자동차 공장의 경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노조 가입 의사' 등의 부적절한 질문을 던져 노동계로부터 '노동 3권을 훼손하는 반노동적 행태'라는 반발을 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를 단초 '평당 1900만 원대의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했다가 사업자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과도한 개입으로

비판을 받았다.

어제 폐막한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3년 만에 열렸지만, 노조가 대표이사에게 대해 부당 해고와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내용을 언급하며 입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GGM 자동차 공장의 경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노조 가입 의사' 등의 부적절한 질문을 던져 노동계로부터 '노동 3권을 훼손하는 반노동적 행태'라는 반발을 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를 단초 '평당 1900만 원대의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했다가 사업자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원점

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과도한 개입으로 비판을 받았다. 어제 폐막한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3년 만에 열렸지만, 노조가 대표이사에게 대해 부당 해고와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내용을 언급하며 입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GGM 자동차 공장의 경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노조 가입 의사' 등의 부적절한 질문을 던져 노동계로부터 '노동 3권을 훼손하는 반노동적 행태'라는 반발을 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를 단초 '평당 1900만 원대의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했다가 사업자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원점

無等鼓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흔히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대 민족의 속담 중 하나다. 신의 본성인 전지전능(全知全能)이나 무소부재(無所不在)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모성이 지닌 희생과 가치가 위대하다는 뜻일 게다.

지난 2008년 나온 소설 '엄마를 부탁해'(장비)는 신경숙이 절정의 기량으로 풀어낸 엄마 이야기다. 서울역에서 자식의 집에 가려다 남편의 손을 놓쳐 실종된 어머니를 찾는 가족들이

엄마를 부탁해

한 범죄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인가구나 비혼의 급격한 증가 기억을 복원해 가며 애써 잊고 있었던 엄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줄 거라 여겼던 엄마의 부재는 자식들에게 엄마를 새롭게 보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화작가 정재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 두 살 때 엄마를 여리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던 작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한다. "하늘나라에 계시는/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중략)/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중략)/ 숨겨 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영영 울겠다." 시인에게 어머니 모든 아에게 엄마는 그렇듯 억울한 일을 일러바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끔찍한 범죄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인가구나 비혼의 급격한 증가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끔찍한 범죄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인가구나 비혼의 급격한 증가 기억을 복원해 가며 애써 잊고 있었던 엄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줄 거라 여겼던 엄마의 부재는 자식들에게 엄마를 새롭게 보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화작가 정재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 두 살 때 엄마를 여리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던 작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한다. "하늘나라에 계시는/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중략)/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중략)/ 숨겨 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영영 울겠다." 시인에게 어머니 모든 아에게 엄마는 그렇듯 억울한 일을 일러바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칭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김철주  
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계절이다. 코로나로 인해 봄을 제대로 맞이하기도 어려웠고, 즐긴다는 것은 더욱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계절만이 아니라 광주 체육계 또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광주체육회가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선 체육회로 출범했지만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하차하게 되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대한체육회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동안 정부가 임명을 해 오다가 경기 단체가 추천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것이 민선 체육회장 시대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던 대한체육회 회장을 지금은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게 되면서부터 대한체육회의 위상에 걸맞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에는 민간식·김택수·박종규·정주영·김운용·이연택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체육회장을 맡아 대한체육회의 위상을 높여 왔고 체육 발전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맡고 있으며, 정통 체육인 출신인 경